

# 호텔업계의 베이커리 사업 어디까지 왔나

## 조선, 신라, 서울프라자 진출... 향후 움직임 주목

일반적으로 호텔 베이커리라고 하면 호텔 로비 부근에 위치한 델리 카트슨을 떠올리게 된다. 그렇지만 이제는 호텔에 가지 않아도 외부로 진출한 호텔 직영 베이커리에서 호텔 제품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아직까지는 이들 호텔 베이커리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점포 확산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 취재/ 정한상 jeong@mbakery.co.kr



반을 다지고 하반기에는 베이커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호텔(www.shilla.net)은 지난해 9월 20일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신라호텔베이커리'라는 상호로 외부에 첫 점포를 오픈했다. 이 호텔은 78년 신라명과를 설립해 베이커리 사업을 전개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부 베이커리에 대한 시장 조사와 사업 구상이 진행 중이다.

올 1월 10일 여의도 한화증권빌딩에 텔리프라자를 오픈한 서울프라자호텔(www.seoulplaza.co.kr)도 올해 외부 베이커리 사업 실적에 따라

최근 호텔 베이커리의 외부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호텔 베이커리 업체는 웨스틴조선호텔(이하 조선호텔), 신라호텔, 서울프라자호텔 등 3곳이다. 이 중 조선호텔은 외부 베이커리 사업이 제일 활발한 곳으로 아직까지 다른 호텔이 사업 초기인 것에 비해 나름대로 기반을 닦아 이제는 사업의 윤곽이 뚜렷해 졌다.

조선호텔(www.westinchosun.co.kr)은 올 초 조직을 개편해 호텔 외식사업부에서 분리, 제빵사업부를 신설했다. 이 사업부는 2월 1일부터 경기도 용인에 있는 냉동생지 생산공장에 입주해 베이커리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제빵사업부는 지원팀, 영업팀, 생산팀, 연구개발팀 등으로 나뉘며 상반기에는 조직의 기

기존의 철도청 연계 외식사업 외에 향후 점포 개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대형 할인점 및 고급 백화점에 입점

호텔 베이커리 사업을 가장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조선호텔의 외부 베이커리는 '달로와요'와 인스투어 베이커리인 '데이 앤 데이'가 있다. 데이 앤 데이는 96년 11월 분당 E마트에 1호점이 입점한 것을 시작으로 창동점, 일산점, 안양점, 청주점, 부천점, 김천점 등 현재 19개로 늘어났다. 특히 데이 앤 데이는 올해 신설되는 E마트에 오픈하는 점포까지 포함하면 3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데이 앤 데이의 오픈 예정 점포가 많은 것은 98년과 99년 연속 2년 동안 할인점업계에서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E마트가 앞으로도 공격적인 경영으로 매장을 많이 신설하기 때문이다. E마트는 향후 2004년까지 80여개의 매장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데이 앤 데이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해의 기술 합작 베이커리인 달로와요는 98년 11월 프랑스 달로와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래 99년 8월 27일 광주 신세계 백화점에 30평 규모의 첫 매장을 오픈했다. 조선히otel은 올해 8월경 신세계 본점에 이어 9월, 11월에도 신세계 영등포점과 센트럴시티에도 새로운 매장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히otel은 데이 앤 데이와 달로와요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용인에 생지 라인을 갖춘 공장을 준공했다. 이 공장은 대지 800여 평에 건평 250평 규모로 데이 앤 데이와 달로와요의 제품을 별도로 분리해 생산하고 있다.

데이 앤 데이는 식빵, 단과자빵, 조리빵, 페이스트리 등 빵류 50여 가지와 파운드, 카스텔라, 머핀, 쿠키 등 과자류 15여 종으로 대중적인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매장에 있는 공장에서는 오전은 30분, 오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한번에 4~5개 제품을 제조한다. 데이 앤 데이 매장은 대형 할인점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오픈된 구조로 앞에는 매대가 있고 그 뒤에 생산시설을 갖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장은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로타리 오븐과 대용량의 도우콘 등 대형설비를 갖추고 냉동생지로 공급되는 제품을 한번에 다량 작업하고 있다. 데이 앤 데이는 대부분의 점포가 일 평균 매출 300만원 이상을 상회하고 분당점의 경우 평일에만 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로와요는 데이 앤 데이와 달리 전통 프랑스 빵을 표방해 고급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는 달로와요 이외에 포송, 르노뜨르, 뿔띠에, 코르동 블루, 에디아르 등의 유명 브랜드가 진출해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달로와요는 광주에 오픈한 점포 이외에 올해 서울에 신설되는 매장이 모두 고급유통점인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할 계획이다.

달로와요는 빵 80여 가지, 케이크 60가지와 초콜릿, 쿠키 등 고급제품 170여 가지를 판매해 데이 앤 데이와 비교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신선도를 요구하는 제품과 고급 제품은 매장에서 생산하고 페이스트리, 케이크 스펀지, 쿠키 등은 냉동생지 형태로 공급받고 있다.

달로와요 업체 관계자는 “달로와요 1호점이 광주에 오픈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인지도가 부족한 편입니다. 서울과 광주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점포 운영 결과가 신선히otel 달로와요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데 전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시제품을 하나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 중으로 얼마후에 프랑스 측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오픈하는 달로와요는 50평 정도의 넓은 규모로 조리 페이스트리와 무스 케이크를 강화해 제품 차별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라호텔은 지난해 9월 1호점에 이어 12월 종로타워에 신라호텔베이커리 2호점을 오픈했다. 신라호텔베이커리는 오픈 초기에는 30%정도 완제품을 공급받고 나머지는 직접 생산하는 형태였지만 현재는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율을 줄이고 자체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 이곳은 케이크 20가지, 식빵류 6가지, 페이스트리 6가지 등 80여가지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호텔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 호텔은 베이커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안양시 관양동에 제품 생산공장을 신설하려 했으나 현재는 계획이 백지화된 상태다. 이는 홈플러스 입점 베이커리인 봉마랭의 운영권이 신라호텔에서 분사한 ‘슈던’으로 넘어가면서 대형 할인점 5곳에 제품을 공급하려던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신라호텔의 한 관계자는 “향후에 추가로 몇 개의 점포를 오픈 하더라도 호텔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은 공급이 가능하며 매장자체에도 생산시설을 확충하면 당장 공장이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



호텔은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 2호점 입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점진적으로 참여 업체 늘어날 전망

호텔이 기존 사업 이외에 베이커리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라호텔이 신라명과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테스트 점포형태로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선례가 있었다. 그러나 신라명과는 83년 신성으로 법인전환을 거쳐 84년 완전 분리됐다. 서울프라자호텔도 84년부터 93년까지 프라자베이커리라는 상호로 베이커리 사업에 진출했으며 한때 인천시 부평구에 생산공장이 있을 정도였다. 프라자베이커리도 롯데백화점에 직영점을 열고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았지만 사업 확장에 따른 자금 압박과 인력문제 그리고 제품공급의 난점 때문에 결국 사업을 철수하고 말았다.

각 호텔마다 베이커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호텔 베이커리가 전체 베이커리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다. 조선호텔을 제외한 타 호텔의 경우 현재 구체적인 사업성이나 방향이 확실하게 드러난 상태는 아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기존 업체에 미친 영향은 파악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인터컨티넨탈호텔은 삼성동 코엑스몰에 직영점을 오픈할 예정이며, 롯데호텔은 반포 뉴코아에 직영 베이커리를 검토했으나 사업성이 불명확해 보류됐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힐튼호텔도 외국인 이용이 잦은 점포에 한해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호텔의 베이커리 사업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호텔의 외부 진출은 계속되겠지만 할인점 입점 베이커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호텔 베이커리는 고급제품 위주로 일부 고급 상권에 입점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분간 호텔 베이커리의 급속한 점포 확산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1]

해 신라호텔베이커리의 급속한 확산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라호텔은 종로타워에 있는 신라호텔베이커리 2호점을 4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5월에 현대백화점 반포점에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같은 매장 철수는 사업 초기에 계획한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에 있는 1호점의 경우는 일 매출이 4백 만원 이상을 상회하지만 2호점은 2백 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로의 젊은층이 주 고객이었기 때문에 고가인 호텔의 고급제품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향후 신라호텔은 7월경 분당의 삼성프라자에 추가로 점포를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프라자호텔은 철도청과 연계해 외식사업에 일찍부터 외부에 진출했다. 현재까지는 여의도에 오픈한 텔리프라자 이외에 추가로 오픈한 베이커리는 없다. 여의도 텔리프라자의 경우 증권가에 위치해 있어 인근의 오피스가에서는 소문난 제과점으로 입지를 굳혔다. 현재 텔리프라자에서는 건포도 테니쉬, 파리지엥 크로와상, 블루베리 턴오버 등을 본사로부터 냉동생지로 공급받고 있으며 호박빵, 밤빵, 바게트는 매장에서 직접 제조하고 있다. 이곳은 100평의 넓은 건물 휴게실에 입점해 차, 음료, 커피도 판매하는 베이커리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프라자

<표> 호텔 베이커리 외부입점 현황

상호	운영주체	입점 지역
데이 앤 데이 / 달로와요	조선호텔	E마트 19곳 / 광주신세계 (1곳)
신라호텔 베이커리	신라호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1곳)
텔리프라자	서울프라자호텔	여의도 한화증권 빌딩 (1곳)

※ 신라호텔베이커리 종로타워점은 4월말로 점포를 철수하기 때문에 자료에서 제외했음.